



편하게 건강을 마시자!

신개념 녹차제품 2선

녹차 음료, 녹차 수제비, 녹차 비누, 녹차 팩... 이제 차(茶)는 '웰빙' 바람을 타고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 '마시기 까다로운 음료'라는 이미지를 떨쳐내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에 더해 녹차의 주요 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농축 앰플이나 녹차 씨에서 추출한 녹차 기름이라는 색다른 상품도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보성녹차테크가 선보인 '녹차 앰플'과 중국 운남 지방에서 생산된 녹차유를 수입·판매하는 다유선의 '참 맑은 녹차유'를 소개한다.

▶ 티백 5배 영양 '녹차 앰플'



녹차가 마시는 '음료'에서 먹는 '건강식품'으로 인식이 바뀌어감에 따라 녹차의 주요 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하려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출시된 것이 ㈜보성녹차테크(대표 임화춘)의 '녹차 앰플'이다. 녹차 잎에서 엑기스를 추출해 주사액용기 모양의 유리병에 담은 녹차 앰플은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는 번거로운 없이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녹차 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차 재배가 활성화 된 보성에서는 80년대부터 녹차 티백을 소주에 넣어 우려 마셔 왔는데,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성녹차테크가 2002년 음료용으로 개발한 녹차 앰플은 최근 여성들의 세안이나 미용용으로 즐겨 쓰인다. 생선이나 육류를 조리할 때 넣으면 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 식당에서 대량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임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녹

미용·냄새 제거에도 탁월 항암·항균 성분만 가려담아

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암·항균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지면서 제품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카테킨이나 데아닌 등 녹차의 주요 성분만을 가려 담은 녹차 앰플은 5cc 정도의 양으로도 기존 티백에 비해 최대 5배 이상의 영양 섭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학도였던 임 대표는 '녹차 대중화'를 모토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과 손을 잡고

▶ 음식에 어울리는 '녹차油'



1592년, 총무공 이순신은 왜군과 삼천포 항에서 격전을 벌이다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이때 운홍사의 한 스님이 건넌 차 열매 기름을 바르자 상처가 금세 아물었다고 한다. 이처럼 예로부터 녹차 기름은 상비약으로 널리 사용됐다. 사찰이나 민간에서만 전해지던 녹차유가 최근 상품으로 개발돼 고급 식용유 시장에 진출했다. ㈜다유선(대표 박노환)이 출시한 '참 맑은 녹차유'가 바로 그것이다.

"녹차유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 지방간을 억제하는데 좋고, 특히 고혈압이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89년에 펴낸 <동의학사전>에는 녹차유가 장 질환, 화상, 등상에 주로 쓰인다고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카테킨과 사포닌 성분이 많아 몸을 알카리화하는 항산화식품이기도 하다. 다유선이 생명과학연구소에 녹차유의 성분

나무무침·샐러드에 '제격' 고혈압·치매 예방에도 좋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항산화작용을 하는 올레인산이 56.3%, 항암성분인 카테킨이 100g당 73mg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차유는 기름 특유의 향이 나지 않아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 부침개 등에 사용하면 음식의 맛을 살려줍니다. 재료 본래의 맛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요리에 잘 어울리지요."

출시된 지는 이제 두 달째지만 시장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현재 대형 백화점 7군데에 납품하고 있는 녹차유를 올해 말부터 홈쇼핑을 통해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1리터에 2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은 다소 부담스러운 편. 이유는 녹차씨 12kg을 짜야 겨우 녹차유 1리터를 얻을 수 있는 희소성 때문이다. 중국 운남산 녹차유를 수입 공급 받아 판매하는 OEM방식(주전자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다유선의 박대표는 "앞으로 보성차 시험장과 연계해 국내산 녹차씨로 녹차유를 생산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피력했다. (02)833-2005 이은비 기자

"가치 알고 차문화 바로 잡아야"



〈한국인과 차-그 사색의 열린 공간〉 펴낸
정동주 씨

등에서 자작나무 잎으로 만든 백화차를 즐겨 마셨던 기록과 제천의식이나 국가 중요행사 때 행해졌던 백화차 의식의 흔적을 더듬어 본다. 또한 불가(佛家)에서 차문화와 제례에 차를 올린 기록, 선비들의 차문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차살림〉 등을 펴내며 차와 도자기를 연구해 온 소설가 정동주(사진) 씨가 〈한국인과 차-그 사색의 열린 공간〉을 펴냈다.

佛家·선비들 차세계 소개 우리의 차살림 부흥 강조

우리 고유의 차문화를 '차살림'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중국의 다예(茶藝)나 일본 다도(茶道)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우리 고유의 차살림을 다시 찾아 일으켜 세우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차의 기원을 찾아 나서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조로아스터교와 힌두교의 제의식 때 식물의 즙을 짜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수질이 나쁜 중국에서 물 대신 마시던 차가 불교문화와 만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점 등을 짚어보면서 차문화의 기원과 역사를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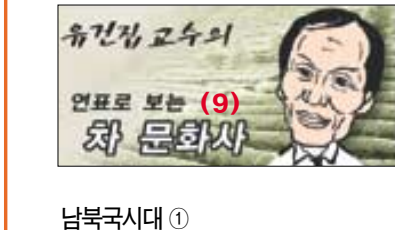
특히 지은이가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역사다. 고조선과 고구려, 부여, 발해

근현대 우리 차문화가 그 명맥을 제대로 잇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는 "차문화의 보고(寶庫)였던 사람이 이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고, 해방 후 일본인들에게 차를 배운 사람들이 우리 차살림 대신 일본 다도를 교육하며 차문화 보급에 앞장섰다"며 "이제 우리 차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가치를 잊고 있었던 우리 차문화를 살려야 합니다. 한국 차문화의 미래를 위해 제다법의 확립과 세계 시장을 지향한 미래 산업으로서의 차농사 계획, 건전한 차문화 비평 정립 등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도서출판 다른세상, 3만 원.

여수령 기자



남북국시대 ①

신라를 성덕왕이 즉위하면서 나라가 평온한 상태로 당(唐)과 교류가 많아지고 학술(學術)이나 선비들이 입당 유학 하는 일이 잦았다. 해초가 인도에 까지 이르고 사천(四川)의 다사(茶史)에 큰 발로 남은 무상(無相) 스님과 중국 지장신앙의 근간이 된 지장 김교 각 스님이 입당하여 불교사에는 물론, 다사에도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중국

도 마조도일(馬祖道一)이 선종을 일으키고 서당지장인 선과 차를 엮었으며, 현종이 즉위하여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특히 육우(陸羽)가 출생하여 일본에도 <일본서기>가 쓰여지고 제도가 갖추어진 시기였다. 우리의 차가 중국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입

로 728년 입당하여 처적(處寂)을 만나고 청성산(靑城山)으로 들어가 노장학설과 부합하는 삼학(三學) 이론을 창출하여 마조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무상선다도(無相禪茶道)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

② 지장 김교각 스님도 왕손으로 입

다하고 돌아오다가 귀정문에서 왕의 부름을 받고 차를 올렸다. 그가 다통(茶筒)을 메고 있다가 즉석에서 차를 끓여 올린 것으로 보아 차생활의 보급과 현대의 예를 짐작할 수 있다.

④ 이백은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족질(族姪)인 중부(中孚) 스님의 옥천 선인장차(玉泉仙人掌茶) 얘기는 유명하다.

⑤ 봉연(封演)은 당나라 천보연간 사람으로 <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 10권을 썼다.

⑥ 육우가 이제물을 만나 추부자의 별서에서 본격적으로 차공부를 했다.

⑦ '전다기언'은 바이사가 1857년에 쓴 차에 대한 기록으로, 천평대(天平代)에 차를 심고 마셨다고 적혀 있다.

신라의 차종·다법 중국에 영향 준 시기

었다기 보다는 무상이나 지장 스님이 활약한 기록으로 본다면 우리 차종(茶種)이나 다법도 중국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당하여 구화산을 중심으로 지장신앙을 심었으며, 신라의 다목(茶木)을 가져다 심었다. '화성사 지장전'이나 '전당사'에 그의 다시(茶詩)가 전한다.

③ 총담 스님은 경덕왕 때 '천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지은 분으로 삼월 삼짱날 경주 남산 삼화령 마력세존께 헌

① 정중무상(靜衆無相) 스님(684-762)은 신라 성덕왕의 셋째 아들

시대별 연표			
	한국	중국	일본
남북국시대	702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701 이백(李白)의 출생(-762) ④	702 율령(律令) 반포
	705 지장 김교각 스님 출생	709 마조도일의 선다행(禪行)	712 당 현종(玄宗) 즉위
	707 봉덕사 창건	712 당 현종(玄宗) 즉위	718 황음주례(饗飲酒禮)를 행함
	723 해초의 인도순례		
	724 상원사 창건		
	725 상원사 동종 주조		
	728 무상(無相) 스님 입당(入唐) ①		
당대	729 지장 김교각 스님 중국에 다목(茶木)을 심다 ②	733 육우 출생	720 <일본서기> @ 전다기언(煎茶論) 천평대(天平代)
	742 김홍영 등 187명이 일본 사신으로 감	735 '다(茶)' 자가 보임 @ <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 ⑤	
	745 총담(處談) 스님의 다통(茶筒) ③	747 육우가 이제물을 만나다 ⑥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02-722-7777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정: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정: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살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정: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